

## 재벌 3대에 무너진 현중 노동자 삶, 바로 세운다 현중지부 재벌 사익편취 저지 투쟁 ... “대주주 고배당보다 임단협 마무리가 우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지부는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준-정기선 부자의 사익추구와 경영권 세습을 당장 멈춰야 한다” 라고 경고했다. 사측의 해를 넘긴 임단협 불성실교섭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 오늘,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위법한 날치기 주주총회를 통해 현대중공업 그룹을 법인분할 했다” 라며 “2019년과 2020년 임금·단체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인분할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은 무너졌다. 정씨 일가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3세 세습을 진행 중이다” 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빌미 삼아 물적 분할(법인분할) 안전을 통과시켰다. 사측은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는 주주인 지부 조합원들의 주총 참석을 막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몰래 기습 변경했다. 주주 조합원과 일반 주주 대부분이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사 사정이 나빠 임금은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면서 정몽준·정기선은 고액 배당에 열 올리고, 3세 세습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라며 “정주영부터 정기선까지 3대에 걸친 현대중공업 재벌의 적대적 노동관은 도통 바뀌지 않는다” 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대주주 정씨 일가에 2,600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 정몽준-정기선 부자 3년 동안 2,600억 원 현금 배당

김호규 위원장은 지부 2019·2020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측 주장대로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사측의 무능과 주먹구구식 운영 탓이다” 라며 “총수 일가 고액

배당보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 지급이 우선이다. 임단협을 하루빨리 끝내려는 노동자의 선의를 무시하면 머리띠를 더 단단히 묶는 수밖에 없다” 라고 경고했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사측은 재벌 지배 체계를 더 단단히 만들려고 날치기 주총으로 법인분할을 밀어붙였다. 임단협은 해를 두 번 넘겼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단체협약 승계 다툼 등을 겪고 있다” 라며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 총수 사익 편취를 끝장내겠다” 라고 결의했다.

현대중공업 재벌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노조가 현대중공업 재벌 총

수 사익추구와 위법 법인분할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계속 알린 덕분이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사분할·합병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이전에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갑 현대중

공업그룹 회장 처벌과 사퇴 요구도 나왔다. 조경근 지부장은 “중대 재해로 노동자들이 계속 목숨을 잃는다. 5월 8일 일하다 또 죽었다”라며 “권오갑 회장이 노동자·하청업체 착취 구조를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관심 없고 정몽준 일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권오갑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재벌총수 사익추구 중단 투쟁을 전면화한다.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선전전과 집회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연다. 6월 2주 차부터 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해 투쟁한다.

##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 정신 실천하겠다”

### 경남지부 투쟁사업장 방문, 교섭위원 간담회 ... 지에이산업분회 등 현안 해결 결의

금속노조가 6월 1일 7차 중앙교섭이 열린 창원을 찾아 경남지부 투쟁사업장 농성 천막을 방문하고 경남지부 교섭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 중집위원들은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농성장을 찾아 동지들을 격려했다.

지부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현안 문제해결에 노조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날씨가 더워지고, 투쟁이 길어지면 동지들이 지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노조 중집위원들은 중앙교섭을 마치고 지부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상합 현대로템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폐업했고, 비조합원들을 다른 공장에 채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라며 “지에이산업은 위장폐업이고, 불법과건 사업장이다. 노조가 지에이산업분회 문제 해결에 책임지고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최규운 일진금속지회장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중앙교섭에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원장의 고민을 이야기해 달라”라며 산별교섭 확대·강화와 관련한 노조의 의견 발표를 요구했다.

나희수 화천지회장은 “노조는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중앙교섭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이 집중할 수 있는 의제가 없어 더 멀어지고 있다”라면서 중앙교섭 요구안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용우 샘코지회장은 “사천지역이 항공산업의 메카라고는 하지만 현재 사천의 노동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라며 “노조가 항공산업에 대응할 임원

과 사무처를 배치해서 더욱 세밀하게 챙겨달라”라고 요구했다.

안용우 지회장은 “금속노조는 강력한 힘이 있는 노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집회를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며 “금속 간부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선봉에 서서 제대로 타격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지에이산업분회 문제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국내 항공산업 재편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021년 통일 요구안인 산업전환협약이 교섭에서 가닥을 잡으면 산별교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는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서울 한복판을 뚫어보겠다”라고 결의했다.

# “부수자,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노조파괴 교섭창구 단일화 법 조항 폐기 투쟁 돌입 ... “고쳐서 못쓴다. 폐기만이 대안”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를 위한 국회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농성투쟁을 6월 1일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부터 11일 세종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6월 1일 국회 앞에서 연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시행 10년, 헌법소원 2년 차를 맞아 자본이 노조파괴용으로 사용하는 법 제도의 문제와 사용자 멋대로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현실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미애법’으로 불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법은 2009년 12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 단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대표 노동악법이다.

법 통과 이후 창조건설링 같은 노조파괴 전문범죄기업들이 기승을 부렸다. 사용자는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어용노조 육성, 노조 무력화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다수노조라는 이름의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키우는 장치로 악용했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해 2노조, 3노조

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무력화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속노조는 창구단일화제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ILO 핵심협약의 단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제도 시행 10년, 노조파괴 기승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들이 대형로펌과 노무법인을 끼고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고 있다. 사용자가 단결권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사용자와 ‘김&장’ 같은 대형법률사무소가 법을 악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황미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2010년 KEC가 교섭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회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회의 강도 높은 투쟁에도 사측은 교섭을 거부했다”라면서, “사측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법 시행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교섭을 거부했다”라고 규탄했다.

황미진 지회장은 “사측은 7억 원을 들여 복수노조 설립했다. 어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두 번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당했다. 자본이 만든 노동조합이 누구의 이해

를 대변하겠나?”라고 분노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소수노조 사실상 노동3권 행사 불가능 ▲공정대표 의무 작동 불능 ▲사용자 노무관리 전략 악용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현장의 노·사 관계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성 노무사는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상 문제는 고치거나, 보완해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교섭권을 특정 노조가 독점하는 순간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 침해가 뻔히 보이는 제도이다”라면서 “법 폐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세우고,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는 농성 첫날을 마무리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우리 사장이 가장 악질이다’라는 제목의 토크콘서트를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으로 고통받는 현장 상황을 나누고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노조는 농성 둘째 날인 6월 2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아침선전전을 시작하고, 국회 앞 점심 선전전, 오후 2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간담회, 오후 4시 서울노동청 규탄 집회를 연다.